200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 머리말 -

피해가 매우 큰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 및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빈발 분야에 대해 공시하거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문제제기나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시장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일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동안에 시장의 질서를 공정·투명하게 하고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만들기 바란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경유착, 관치경제로 한정된 자원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 및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과 지지가 높았으나 시장경제가 된 상태에서는 국민과 시민사회가 공정위 업무를 한편으로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책임이 더 커졌고 기대와 비난도 옛날보다 더 많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할 때는 시장현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풀어나가기 바란다. 시장은 현명한 참가자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화

물트럭 등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예측하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는 분야가 많이 있어 이런 분야의 규제를 풀고 나서 시장이 교란되면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독과점의 개념을 규정할 때 공정위가 국내시장만 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국내시장만이 아닌 국제시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라.

공정위 업무 성격상 적발건수가 많으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실제로는 위법행위가 적어야 성과가 좋은 것이라는 딜레마가 있다. 실제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이 정도면 공정하다' 거나 시장의 약자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는 평가가 나와야 잘 된 것이다.